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참빛장로교회 - 박성재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방송 스케줄
▶ 방송 선교지원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아프리카 우물과기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 샤론센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한국선원 선교회	
▶ 이완구 장학사역	

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	▶ 미주 남침례회 SBC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쿠바(정경석)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니카라과(혜밀턴)	▶ 한인국내선교부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한인해외선교부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잠비아(Emile)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말레이시아(고인섭)	▶ 밀알선교단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8월 29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분당
-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분당
-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분당
-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툴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베툴레헴
11:00AM / 나사렛
-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분당
-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툴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 6:00AM / 분당
-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YouTube tfbc

www.tfbc.org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전우일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남궁곤 목사

- * 경배와 찬양
- 1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장 “거룩 거룩 거룩”
- 3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감사함으로”
“영광의 이름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이호영 집사

봉헌찬양

1,3부: 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공동체 소식

*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5:10

제목

“미라클”

말씀선포

남궁곤 목사

* 응답찬송

1부: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3부: “하나님의 은혜”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야, 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1-2)

7. 2021년 가을학기 한글학교 등록 안내: 9/10(금) 개강하여 14주 동안(12월까지)

- * 대상: (1)유치부: 교회에서 대면 수업, 매주 금요일 오후 6:00-8:30
(2)초등학생, 중고등부 기초반: 온라인 수업, 매주 금요일 오후 7:00-9:00
(3)중고등부 중고급반, 성인반: 온라인 수업,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1:30
- * 등록비: \$120 (등록마감 9/5까지) /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교회 홈페이지)
- * 문의: 영숙고령 집사(253-230-3402), 김완경 집사(253-691-6711)

8. TFBC 북클럽 시즌 2 개강: 9/11(토) 오전 11시

- 북클럽은 정해진 책으로 진행하는 도서 나눔 클래스로, 이번에는 2개의 클래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클래스#1: '당부 하나님', 클래스#2: '내가 만든 신' ※ 교재비: 각 \$10. 장소: 추후공지

9. 디모데후련 2단계(기독교 기본진리) 개강: 9/12(주일) 오후 1시

-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고,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서 개강일 첫과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문의: 사무실)
- ※ 2단계: 하나님의 VIP를 수료한 모든 성도(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모든 성도들은 필히 수강해야 함)
- ※ 교재비: \$20. 장소: 추후공지
- ※ 수강생의 자녀를 돌보는 **탁아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봉숙오글전도사)

10. “9월 생명의 삶” 국제 배송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회로 배송이되는대로 구입 가능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코로나 방역 지침

-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앉아주세요.
- 2) 성인예배는 입장 철차를 생략합니다(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지 않음).
- 3) 다음세대예배(유치,유년,Youth)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 4) COVID-19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사역자 휴가: 봉숙오글 전도사 8/31-9/11

◇ 중보: Willie Buggs, Leah An, Tiffany Walker,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eth Adkins, Mike Mooer, Eric Mose, Tom Bayliss, 이은주, 신진선, 신의범, 최재돈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분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지난 5주 동안 Mission Wednesdays(선교 수요일) 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진행과정 안내

- 1) 오늘 기준으로, 청빙위원회는 원래 후보 14명 중에서 4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 2) 오늘 오후 청빙위원회 모임에서는 다음 단계(인터뷰)에 응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추가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 3)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통해 2주 뒤에 안내하겠습니다.
* 청빙과정과, 청빙위원, 그리고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영어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2021-2022 Awana 개강 및 교사 모집: 9/1(수) 오후 7:00-8:20. 새학년 Awana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수요 어와나에서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남궁곤 목사)
* 대상: 3-5세(Cubbies)/ K-2학년(Sparks)/ 3-6학년(T&T)
* 1인당 \$65 /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교회 홈페이지)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양 팀

기도 봉점랭 집사

제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33]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성경본문 누가복음 9:45-62

말씀선포 전우일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번 주	다음 주
기도 Prayer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이호영 집사 수요 봉점랭 집사	1부 김연정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미나리베라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분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8/30(월)	사사기 11:12-18	전우일 목사	8/31(화)	사사기 11:29-40	안재훈 목사
9/1(수)	사사기 12:1-15	남궁곤 목사	9/2(목)	사사기 13:1-14	정주영 목사
9/3(금)	사사기 13:15-25	전우일 목사	9/4(토)	사사기 14:1-9	남궁곤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 **본문: 사사기 4:14-15**

[사사기 4장]에는 두 여인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당시 이 두 여인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서만 취급 받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외면 당하던 두 여인들의 용감한 말과 행동을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하셔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바락의 인생을 변화시킨) 드보라가 선포했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말씀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게서 학대를 견뎌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최신식 무기인 '철 병거'를 무려 900대나 보유 할 수 있었던 강대국이었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이스라엘은 '질망과 좌절', '두려움과 포기'와 '원망'만이 남아있는 암울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근본 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사사기 4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번에 말씀 목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1절]에 나오는 '또 다시/Once Again' 라는 짧은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에서, '사람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한다'고 우리의 이중적인 실체를 고발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 때에도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계속해서 목상하다 보니, 이 불편한 말씀이 결국 나의 이야기, 나의 '죄 성'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또 불편하여 지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 '언제나 자기 조건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와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그리고 우리 또한) 단 한 번도 '또 다시'라는 이 불편한 단어를 멋있게 이겨 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죄악의 본성 안에 갇혀버린 채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며 범죄 할 뿐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간 만나를 먹고 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신비한 이스라엘이 라 할 지라도, 조금만 삶이 편해지면 언제든지 급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불순종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질적인 죄'는,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또 다시'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 버립니다. 즉,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또 다시' 여호와 앞에서 행악하여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시' 소망이 되며 감사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다시'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할 '그 자리'는, 잊을 만 하면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육신의 고난'을 안겨다 주는 '세상의 염려', '걱정과 근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즉시 일어나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과 같은 '나만의 세상'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만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 내 영혼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20년 묵은' 나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미 내게 익숙하여 질 데로 익숙하여 진 '탐심'과 우상들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박차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야 할 '그 현장'은 또한 어디입니까?: 곧 가나안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전쟁 터' 한 복판입니다. 가나안의 '철 병거' 900대가 이미 포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전쟁 터',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달려오는 듯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터속으로, 이제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실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가 고백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0-33)

사실 '앞서 행한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었기에 그 앞에 무엇이 있는 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현재 눈 앞에 있는 것들(고난/전쟁터)만 볼 수 밖에 없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드보라의 이 외침은 우리에게도 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혼자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니, 이제 순종하며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고난중에서도 선포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23편]을 더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앞에 가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니, 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면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 바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함께 가야 할 그 곳이 비록 가나안인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의 한 복 판이라고 할 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씩, 담대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대신에,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고 주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락이 결국 히브리서의 믿음 장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말씀을 듣고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전쟁터로 나아가간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고, '전쟁에 용맹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로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은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남자 형제님들이 바락과 같이 이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남자 형제님들에게 거룩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본문의 바락 장군처럼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철저히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즉,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영적 침체의 골레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안을 과도 같이 언제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선포한 '드보라'와 같이, 그리고 즉시 말씀에 순종한 '바락'과도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목상 질문]

1. 여인들이 강하다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2.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3.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지금 내가 일어나 나아가야 할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5.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